

정부 정책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광 용
영북낙우회 회장

현 정부는 IMF구제 금융의 위기까지 초래케하고 이체는 농촌의 식량안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과세영세율까지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된 정부 융자금의 부담과 물가의 폭등에도 IMF에 밀린 축산물 가격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여 낙농 한우 사육 기반이 순식간적으로 무너지고 있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면서 낙농, 한우의 육성대책의 조기 수립과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쟁력 제고사업의 정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탕감할 것 등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구 합니다.

첫째, 오늘의 농촌현실은 사료비의 대폭인상과 기자재 약품대 유류의 폭등에도 송아지는 80만원하던 것이 이제 송아지가 10분의 1인 8만원까지 하락되었고 우유값은 생산비에도 못미쳐 사육기반이 무너져 계속 파산되고 있는 이때에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된 정부 융자

금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독촉함으로써 또 다른 부채가 발생되고 결국 파산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농촌은 공업과 수출화 정책에 밀려 소외되어 왔으며 설상가상으로 WTO협정체결로 수입농산물에 밀려 엄청난 불안과 희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WTO협정 체결시 일본 등 이웃 국가보다 불리한 체결로 무역자유화는 곧 농민에게 엄청난 희생이 강요된다고 판단하여 뒤늦게 농촌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촌에 지원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IMF한파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셋째, 정부는 농업분야에 복합영농에서 단일업종으로 전업, 전문화하도록 유도 하였으며,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시행하여 시설의 현대화, 자

동화에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업인은 정부시책에 따라 품질의 고급화, 노동력의 절감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상승때 마다 농산물이 주요인이라고 호도하고 마구잡이로 수입방출만이 극약처방을 서슴없이 이용한 반면 우리 농산물의 보호 및 수출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음은 물론 전문단체의 조언 및 요청마저 거부 내지 검토등으로 일관하고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수입가에 기준하여 농산물 저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촌은 막대한 시설자금의 부채만을 안고 파산 하고 있습니다.

넷째, 또한 재경원은 사료, 원가 재등은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인상을 허용하면서 그로 인해 인상요인이 발생한 원유값은 인상허용을 기피하고 5천5백억 세수증가를 위해 사료, 기자재 등에 적용된 부과세 영세율마저 전면 폐지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참으로 웃지못할 것은 재경원의

고급공무원이 금번 원유대 인상안을 심의하면서 4×4=16% 라는 이상한 산술법으로 흥정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낙농인 모두가 알고 있으며 오만하고 무지한 재경원 처사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다섯째, 재경원은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이제는 식량안보 기만까지 무너 뜨릴 것인가?” 오만방자하고 책상머리 정책을 하는 현정부의 재경원을 규탄하며, 농수산부는 무얼하는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5공화국 시절 소

파동으로 많은 농촌 후계자들이 파산, 자살했으며 후일 어두운 역사로 평가되고 당시 국가원수가 저주 받고 있음을 상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일업종으로 전업, 전문화는 그 업종이 폭락할 때 파산되기란 복합영농보다 쉬운일이며 더욱이 용자를 받았을때 전 재산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생하기란 극히 어려워 후속대책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농특세는 목적대로 농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결코 금융위기에 식량안보까지 무너뜨리는 누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촌은 IMF 한파 이전에도 계속 한파속에서 견디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국가 경제 위기와 농촌 위기를 저울질 해서는 안되며 동일선상에서 봐야할 것을 충고 하면서 농촌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된 용자금에 대한 조치와 낙농 한우 사육 산업의 육성책의 조기수립시행, 농자재,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적용, 제반 농촌관계 법률안의 재검토 등 병행하여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필자연락처 : 0357-32-5866)

협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IMF한파로 낙농육우농가들이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 등 감당하기 힘든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에서만 가능합니다. 올해도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회비를 조기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미납된 회원들께서는 98년 정기총회(3월 3일 예정)때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97년 회비가 미납된 회원들에게는 종이값, 발송료 등 여러가지 물가양등으로 월간 낙농육우 3월호부터 중단됨을 알립니다.



社團 韓國酪農肉牛協會
法人